

만 5세 조기취학 아동의 초등학교 3학년 적응도에 관한 연구*

Adaptability of Third Grade Children in Cases of Early Entrance to Elementary School

백 경 순**

Back, Kyung Sun

이 대 균***

Lee, Dae Kyun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daptability of 3rd grade children in Taejon who had started first grade at 5 years of age. Subjects were 64 third grade children, half of whom had started first grade at 5 years and half at 6 years of age. Thirty-four parents and 36 elementary school teachers were also sampled. The General Intelligence Test, the Learning and Thinking Ability Test, and the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ecklist were administered to the children. Parents and Teacher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on the Adaptability of Early Entrance Children.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hildren who started first grade at 5 and those who started at 6 years of age in their Intelligence scores, Learning and Thinking Ability scores, and the Socio-Emotional Development scores. Parents as well as teachers felt that the early entrance system was positive for children.

* 이 논문은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배재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문학석사.

***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I 서론

교육개혁위원회는 1995년 5월 31일에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안」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만 6세가 되어야 초등학교에 취학할 수 있는 것을 만 5세아의 경우에도 학부모가 희망하고 신체검사 및 능력검사 결과 수능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학교의 수용 범위 내에서 취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교육개혁심의회, 1995). 이의 주목적은 능력이 뛰어난 아동을 다른 아동보다 1년 먼저 초등학교에 진학시켜 그에 알맞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인 재원을 키우고자 함에 있었다. 그러나 유아교육계에 의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나타난 여론은 만 5세아를 대상으로 그들의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며 그것은 오히려 만 5세 아동들에게 초등학교 조기 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 및 과외 열풍을 가져온다는 비판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교육부는 그러한 반대 의견을 수용하여 만 5세아의 능력 여하를 따지지 않고 부모들이 희망하고, 초등학교 1학년이 2부제 수업을 하지 않으며, 학급당 인원수가 40명 이하일 때 생년월일이 빠른 순서로 입학을 허용하였다(교육부, 1996).

초등학교 1학년 조기입학 아동의 인지과제 수행, 사회적 수용도, 자아개념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조기입학 아동이 정상입학 아동보다 학문적 성취도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공격성에서는 더 높은 평정을 보이고 있다(정덕희, 1996). 한국유아교육학회 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해 이루어진 조기취학 아동의 초등학교 1학년 적응에 대한 연구(이대균·이기우·현은자, 1997)에서 만 5세 조기취학 아동과 만 6세 정상취학 아동의 지능, 사고력 및 사회·정서발달을 비교한 바, 기초적인 사고력은 차

이가 없었으나, 고차원적 사고력은 만 5세 조기취학 아동에 비해 만 6세 정상취학 아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으며, 조기취학 제도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도 부정적으로 나타나 조기취학 제도가 철회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영재학회에서 발표된 만 5세 취학 아동의 취학 후 적응에 관한 연구(1학년을 대상)에서는 조기취학제도가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이 제도를 철회하기 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하며, 조기취학 아동의 판별에 심혈을 기울여야함을 밝히고 있다(전경원, 1998).

그러나, 만 5세에 조기취학한 아동의 학교 적응도에 관한 연구(정덕희, 1996; 김영신, 1996; 이대균·이기우·현은자, 1997; 김인자, 1997; 전경원, 1998; 박미영, 1998)들은 대부분 1학년 아동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고, 이 아동들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떠한 적응도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1학년 시기에 부적응을 보이던 만 5세 조기취학 아동들이 3학년이 되어 어떠한 현상을 보이는지를 연구함으로써 만 5세 조기취학 정책의 존폐 및 수정보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함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만 5세 조기취학 아동은 만 6세에 정상취학한 아동에 비해 지능, 사고력, 사회·정서 발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만 5세 조기취학 아동의 적응에 대한 학부모와 담임교사의 견해는 어떠한가?

1996년 3월부터 만 5세아 조기취학이 실시된 이후 국내 유아교육계와 초등학교 분야에서 이루어진 조기취학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덕희(1996)는 서울특별시의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조기취학 아동 23명과 정상취학 아동 23명을 대상으로 Piaget 실험을 통한 인지과제 수행 능력을 비교한 바, 정상취학 아동 집단이 조기취학 아동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인기도 평정에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교사들의 평정에 의하면 친사회적 행동은 정상취학 아동집단에서 더 높은 발달을 보이고, 공격적인 행동은 조기취학 아동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나며, 회피적 행동에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균·이기우·현은자(1997)의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서산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 조기취학 아동 73명과 정상취학 아동 73명을 대상으로 지능, 사고력 및 사회·정서 발달 정도를 비교하고, 학부모와 담임교사의 조기취학 제도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만 5세 아동과 만 6세 아동의 지능 및 언어이해력, 수학적 사고력, 시각기억력과 같은 기초적 사고력은 차이가 없었으나, 원리를 추론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고차원적 사고력은 5세 조기취학 아동에 비해 만 6세 정상취학 아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기취학 제도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김인자(1997)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1학년의 조기취학 아동의 담임교사 267명을 대상으로 조기취학 아동의 적응에 대한 교사인식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조기취학 아동은 학교생활에 대체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인지측면 보다 사회적인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습능력은 이해력, 응용력, 집중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5세 아동의 지도상의 문제점으로는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화 교육, 부적응에 대한 대책, 조기취학의 선별기준 순서로 지적되고 있다.

조기취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김영신, 1996; 박미영, 1998)에서 취학 연령은 만 6세가 적당하며, 조기취학 실시에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수아에 대한 대안책으로 특별기관에서의 영재교육, 동연령 안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하거나 심화학습을 병행하는 교육방향을 주장하고 있다. 조기취학 아동의 적응력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적응에 대한 원인으로 는 적용 부족, 학습능력의 부족, 학습 준비도의 부족, 신체적 건강 및 협응력의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년월일 순에 따른 허용기준을 반대하고 있다. 박미영(1998)은 조기취학시 표준화된 검사, 정서적 안정성 및 사회적 성숙, 유치원 교사의 판단을 선별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어, 검사실시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낸 김영신(1996)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전경원(1998)은 만 5세 조기취학 아동의 취학전 교육내용과 취학후의 적응도를 알아보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1학년의 조기취학 아동 420명의 학부모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교육계에서 우려했던 것 보다는 취학전 과외 열풍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적적응, 사회·정서적인 적응, 조기취학 제도에 대해 교사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면 학부모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이 상반되는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전경원은 조기취학 제도를 검토하고 조정하여 영재 아동들의 지적, 사회·정서적인 적응을 도와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기취학의 판별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만 5세 조기취학 제도와 적응력에 관한 연

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전경원(1998)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조기취학 아동이 정상취학 아동에 비해 뒤떨어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외국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는 보다 다양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Uphoff와 Gilmore(1985)는 1950년에서 1980년대 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조기취학 아동의 성취도, 사회적 적응도, 10대 자살률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학년을 추적한 연구로 Langer, Kalk와 Searls(1984)는 전국적인 규모로 표집한 4, 8, 11학년의 백인 97,000명과 같은 학년의 흑인 아동 17,000명의 수학, 과학, 읽기의 성취도 검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정상취학 아동과 조기취학 아동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백인 아동의 경우 4학년과 8학년에서 정상취학아가 조기취학아 보다 모든 검사에서 우수하였으나 그러한 차이는 11학년에 사라졌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서 Davis, Trimble과 Vincent(1980)는 1학년을 만 5세에 취학한 아동과 만 6세에 취학한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Kentucky주 공립학교들에서 1학년 17,000명, 4학년 17,500명 그리고 8학년에서 19,450명을

표본 조사하였다. 이들에게 읽기, 언어, 수학, 기초 기술검사(total battery on the Comprehensive Test of Basic Skills)를 실시한 결과 1학년과 4학년에서 정상취학 아동이 조기취학 아동보다 모든 검사에서 우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8학년에서의 검사에서 정상취학 아동은 읽기 성취도에서만 조기취학 아동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을 뿐 다른 세 영역에서 두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연구로, Proctor, Black, & Feldhusen(1986)는 속진과 관련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조기취학 아동들은 학문적인 수행에서 정상취학 아동을 능가했고, 사회적·정서적인 성장의 부정적인 요인은 최소한이었으며, 부정용이 있을지라도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기취학을 허용하지 않았던 영재 아동들은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심했고, 행동문제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Hobson(1963)의 조기취학한 아동에 대한 종단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기취학한 아동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학문적으로 더 성공하고 특별활동도 더 열심히 하며 고등학교에서 우등상과 표창장을 더 많이 받았고 대학 진학률도 더 높았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아동 중 만 5세에 조기취학하여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34명과 만 6세 정상취학한 아동 34명, 만 5세에 조기취학한 아동의 학부모 34명, 그리고 조기취학한 아동의 담임 교사 34명이다.

2. 조사 도구

연구 대상 아동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김호권(1988)이 제작한 일반지능검사 초등학교 저학년용을 사용하였는데 이 검사는 아동이 검사지에 직접 답을 할 수 있는 필답식으로 되어 있는데, 각 문항에는 4, 5개의 답지가 있는 객관식 선다형 검사로서 언어능력, 언어추리, 도형추리 등 3개의 서로 다른 하위검사로 구성되어 능력을 분석적인 입장에서도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표준화 검사이다.

연구 대상 아동의 지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Meeker(1993)가 제작한 학습능력검사를 한국 창의성연구소(1995)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표준화한 사고력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학습에 바탕을 두어 주어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주어진 문제에 담겨 있는 원리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며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고차적인 정신능력을 측정하는 사고력 검사로서 하위 검사 내용은 언어이해력, 언어추리력, 추상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도형지각력, 시각변별력, 수학적 사고력, 시각기억력, 청각기억력, 감각협응력 등의 10개 영역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가 .90이다.

연구 대상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대균·이기우·현은자(1997)가 사용한 유아용 사회·정서발달 평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사회 정서발달 평정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가 .87으로 나타나 있다.

만 5세 조기취학 제도에 의해 조기에 취학한 만 5세 아동의 학부모와 그 아동을 직접 교육하고 있는 해당 학급 담임교사에게 조기취학 아동의 적응도 및 장, 단점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이대균·이기우·현은자(1997)가 사용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3. 연구 절차

1) 조기 취학 아동 명단 파악

1998년 10월에 대전광역시 서부 교육청(서구, 유성구)과 동부 교육청(동구, 중구, 대덕구)의 협조로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학교별 조기취학 아동의 실태조사를 하였다. 1999년 4월에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대전광역시 서부 교육청의 협조로

1999년도 조기취학아의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1999년 5월 말일에서 6월 중순까지 조기취학아가 재학 중인 32개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각 학교 교무부장의 도움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까지 총 376명의 조기입학 아동의 이름, 현재 학년, 반, 생년월일을 확인하였고, 중도탈락자와 전학자를 조사하였다. 조기취학의 최고 학년인 4학년의 인원수가 적은 관계로 연구대상을 3학년으로 결정하였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심 지역 2개교, 부도심 지역 2개교, 외곽 지역 2개교, 총 6개 초등학교에서 34명을 선정하게 되었다.

2) 예비조사

본 검사에 앞서 연구도구의 적절성, 문제점, 연구절차와 소요시간을 파악하기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6일에 걸쳐 본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다른 학교에서 아동 5명, 교사 5명, 학부모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3) 본검사

본 검사는 1999년 6월 29일부터 7월 16일까지 본 연구자와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1인을 선발하여 실시하였다. 검사를 돕는 대학생에게는 검사지의 종류와 내용, 검사 절차, 검사 실시 방법, 검사지의 회수 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하였으며, 검사 실시 시 모든 아동에게 똑같은 조건을 부여하고, 각 문항에 따른 제한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검사는 6개 초등학교의 만 5세 조기취학 대상자 34명과 신체 발달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신장이 동일하고 좌석 배치 상 같은 자리에 함께 앉은 짝 34명, 총 6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사전에 교장선생님과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고, 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사전 협조를 얻어서 수업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아침 자습시간과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지능검

〈표 1〉 조사 실시 방법

조사종류	대 상	조사실시자	방 법	비 고
1. 지능검사	조기취학아와 그 짝	본 연구자 방문주관	조기취학아와 그 짝 모두를	70분(25+45) 소요, 본 연구자
2. 사고력 검사	조기취학아와 그 짝		한곳에 모아서 실시	가 직접 실시 후 회수
3. 사회·정서발달 평정	조기취학아와 그 짝	담임교사 주관	담임교사 기재	추후 방문 후 회수
4. 학부모용 설문지	3학년에 재학 중인 조기취학아 부모	담임교사 주관	가정통신	추후 방문 후 회수
5. 담임교사용 설문지	3학년에 재학 중인 조기취학아 담임교사	담임교사 주관	담임교사 기재	추후 방문 후 회수

사와 사고력 검사는 자연스럽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내의 특별실이나 시청각실 등을 이용하여 소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실시 방법은 다음 〈표 1〉과 같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지능검사와 사고력 검사는 초등학교 내의 특별실이나 시청각실 등을 이용하여 본 연구자와 대학생 1인이 검사를 직접 실시하여 곧바로 회수하였다. 그리고 사회 정서발달 평정 척도와 교사용 질문지는 연구대상 아동의 해당 학급 담임교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고, 학부모용 질문지는 교사가 가정통신을 통해 전달한 후 각 부모가 기입하도록 하여, 2, 3일 후에 교사가 회수하여 주면, 본 연구자가 추후 방문하여 사회 정서발달 평정 척도, 교사용 질문지, 학부모용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을 거쳐 컴퓨터의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설정된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사용한 통계적 방법은 만 5세에 조기취학하여 현재 재학 중인 아동과 만 6세 취학 아동 간에 지능, 사고력, 사회 정서발달 등의 적용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교사 및 학부모의 조기 취학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반응의 유형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만 5세 조기 취학아의 생년월일이 3월, 4월, 5월의 3개월로 국한되어 있어 만 6세 정상 취학아에 비해 3개월 정도의 차이 밖에 나지 않음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갖는다.

Ⅲ. 만 5세 조기취학 아동의 적용도 연구 결과

1. 만 5세 조기취학 아동의 적용도

연구 대상 아동인 초등학교 3학년의 조기취학 아동과 정상취학 아동의 학교 적용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능, 사고력과 사회 정서발달 정도를 비교하였다.

1) 조기취학 아동과 정상취학 아동의 지능 비교

본 연구의 대상인 만 5세 조기취학 아동과 만 6세 정상취학 아동간에 지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기취학아와 정상취학아 모두에게 동일하게 초등학교 3학년 기준에 따라 지능지수를

산출한 후 이를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언어능력에서 조기취학아(M=20.94)와 정상취학아(M=21.00)는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언어추리에서도 조기취학아(M=16.53)와 정상취학아(M=16.71)는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도형추리에서도 조기취학아(M=21.85)와 정상취학아(M=21.21)는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지능 검사 총점에서도 조기취학아(M=127.32)와 정상취학아(M=123.32)로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가 없으므로 두 집단의 지능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2) 조기취학 아동과 정상취학 아동의 사고력 비교

본 연구의 대상인 만 5세 조기취학 아동과 만 6세 정상취학 아동간에 사고력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초등학교 3학년 기준에 따른 사고력 점수의 차이를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기취학아와 정상취학아의 언어이해력, 언어추리력, 논리적 사고력, 도형지각력, 시각변별력, 수학적 사고력, 시각기억력, 청각기억력, 감각협응력은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추상적 사고력에서는 조기취학아(M=15.94)와 정상취학아(M=14.47)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t(66)=2.55, p<.05$).

<표 2> 연령별 지능지수의 차이

지능	연령	조기취학아(N=34)		정상취학아(N=34)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언어능력		20.94	1.98	21.00	1.54	.14
언어추리		16.53	1.58	16.71	1.82	.43
도형추리		21.85	2.74	21.21	3.11	.91
지능총점		127.32	8.33	123.32	8.84	1.92

<표 3> 연령별 사고력의 차이

지능	연령	조기취학아(N=34)		정상취학아(N=34)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언어이해력		17.68	1.53	17.41	1.50	.72
언어추리력		13.29	2.74	12.03	2.99	1.82
추상적 사고력		15.94	2.13	14.47	2.60	2.55*
논리적 사고력		14.32	2.04	13.79	2.87	.88
도형지각력		9.03	2.01	9.32	2.29	.56
시각변별력		15.94	2.42	16.38	2.85	.69
수학적 사고력		8.59	.86	8.21	1.84	1.10
시각기억력		11.00	3.52	10.29	3.56	.82
청각기억력		13.53	3.48	13.50	3.50	.03
감각협응력		26.56	7.45	24.74	7.65	1.00

*p<.05

〈표 4〉 연령별 사회·정서발달 평정 점수의 차이

연령	조기취학아(N=34)		정상취학아(N=34)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사와의 의존성	22.06	8.73	19.21	6.80	1.50
내적 통제	30.29	7.18	30.68	5.66	.24
친구와의 상호관계	26.44	5.43	26.94	4.51	.41
학교에서의 위안감	27.82	5.54	28.29	4.39	.39
성취동기	24.68	5.65	25.38	4.45	.57
호기심	22.68	7.10	24.29	5.35	1.06

즉, 언어이해력, 언어추리력, 논리적 사고력, 도형지각력, 시각변별력, 수학적 사고력, 시각기억력, 청각기억력, 감각협응력은 두 집단의 점수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추상적 사고력은 조기취학아가 정상취학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두 집단의 사고력이 거의 동등하다고 볼 수 있다.

3) 조기취학 아동과 정상취학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정도 비교

본 연구의 대상인 만 5세 조기취학 아동과 만 6세 정상취학 아동간에 사회·정서발달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초등학교 3학년 기준에 따른 사회·정서발달 평정 점수의 차이를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기취학아와 정

〈표 5〉 만 5세아를 조기취학 시킨 이유

응	답	명	%
유치원 또래보다 잘 적응하거나 학령기 아동과 차이가 없어서		7	16.3
신체적인 조건이 좋아서		7	16.3
지적수준이 우수하다고 판단해서		6	14.0
친구관계가 좋아서		3	7.0
생일이 빨라서		3	7.0
사교육비의 부담으로		2	4.7
주위사람의 권유로		2	4.7
형제간의 학년 차이 조절 때문에		2	4.7
윗 형제의 조기취학 경험에 의해서		2	4.7
조기교육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2	4.7
주변의 친구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1	2.3
아이가 학교에 가기를 원해서		1	2.3
학습의욕이 높아서		1	2.3
사회생활을 일찍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1	2.3
취학전 교육기간이 길어서		1	2.3
유치원 모집시기를 놓쳐서		1	2.3
미성숙해도 기회가 되어서		1	2.3
계		43	100.0

〈표 6〉 조기취학 시킬 때 가장 염려되었던 점

응	답	명	%
사회성 및 교우관계		11	27.5
학습능력 특히 이해력 부족		10	25.0
학교생활의 적응력		5	12.5
체력이 허약해서		4	10.0
선생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 부족		4	10.0
다른아이들과 동등할 수 있을까		3	7.5
체격이 작아서		2	5.0
나이가 어리다고 소외감을 느낄까봐		1	2.5
	계	40	100.0

상취학아의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두 집단에서 교사와의 의존성, 내적 통제, 친구와의 상호관계, 학교에서의 위안감, 성취동기, 호기심이 모두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조기취학아도 정상취학아에 뒤떨어지지 않는 사회성과 정서를 가지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조기취학 아동의 적응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

1) 만 5세아를 조기취학 시킨 이유

만 5세아를 조기취학 시킨 이유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또래 보다 뛰어나서(16.3%, 7

명)', '신체적인 조건이 좋아서(16.3%, 7명)', '지적 수준이 우수하다고 판단해서(14.0%, 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보아 학부모들은 신체발달 및 인지발달이 또래보다 빠른 경우에 조기취학을 시켰음을 알 수 있다.

2) 조기취학 시킬 때 가장 염려되었던 점

만 5세아를 조기취학 시킬 때 가장 염려되었던 점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성 및 교우관계(27.5%, 11명)'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학습능력의 부족(25.0%, 10명)', 그리고 '학교생활의 적응력(12.5%, 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보아 만 5세 조기취학 아동의 학부

〈표 7〉 조기취학아의 신체발달에 대한 학부모의 평가

응	답	명	%
긍정적			
체격이 정상적이고 건강하다		21	70.0
다른아이 보다 큰 편이다		4	13.3
학년이 올라가면서 양호해졌다		1	3.3
	계	26	86.6
부정적			
왜소하거나 허약하다		4	13.3
	계	4	13.3
	합 계	30	100.0

모들은 조기취학시 사회성 및 교우관계와 학습능력 등의 문제를 가장 염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조기취학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평가

(1) 조기취학 아동의 신체발달 측면

만 5세 조기취학아의 신체발달에 대한 학부모의 평가를 알아 본 결과는 <표 7>에서와 같이 긍정적(86.6%, 2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격이 정상적이고 건강하다(70.0%, 21명)'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아이 보다 크다(13.3%, 4명)'와 '왜소하거나 허약하다(13.3%, 4명)'는 같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조기취학아의 신체상의 발달은 대부분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로 평가되고 있으나, 아주 작고 허약 체질의 아이도 다소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조기취학 아동의 학업성취도 측면

만 5세 조기취학아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부모의 평가를 알아 본 결과, '보통 중간 정도이다(25.0%, 8명)', '대체로 잘한다(21.9%, 7명)', '만족한다(12.5%, 4명)', '이해력이 부족하다(9.4%, 3명)' 이라는 순으로 응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성적을 대체로 우수하거나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며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조기취학 아동의 행동발달 측면

만 5세 조기취학아의 행동발달에 대한 학부모의 평가를 알아 본 결과, '대체로 만족스럽다(20.0%, 6명)', '다른 아이와 비슷하다(16.7%, 5명)', '보통이다(10.0%, 3명)', '적극적이고 탐험적이다(6.7%, 2명)', '책임감이 있다(6.7%, 2명)' 라는 순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했고, 반면에 '주의가 산만하다(6.7%, 2명)', '미흡하다(6.7%, 2명)' 라는 부정적

<표 8> 조기취학아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부모의 평가

응답	명	%
긍정적		
보통 중간 정도이다	8	25.0
대체로 잘한다	7	21.9
만족한다	4	12.5
이해력, 사고력이 높다	2	6.3
우수하다	2	6.3
학업태도가 적극적이다	1	3.1
계	24	75.1
부정적		
이해력이 부족하다	3	9.4
약간 미흡하다	2	6.3
평균 이하이다	1	3.1
국어나 어휘력이 뒤떨어진다	1	3.1
학업에 대한 적극성이 없다	1	3.1
계	8	25.0
합 계	32	100.0

〈표 9〉 조기취학아의 행동발달에 대한 학부모의 평가

응	답	명	%
긍정적			
	대체로 만족스럽다	6	20.0
	다른 아이와 비슷하다	5	16.7
	보통이다	3	10.0
	적극적이고 탐험적이다	2	6.7
	책임감이 있다	2	6.7
	노력, 성취욕이 강하다	2	6.7
	양보심이 많다	1	3.3
	명랑하고 표현력이 좋다	1	3.3
	예의바르게 행동한다	1	3.3
	학년이 올라가면서 좋아진다	1	3.3
	계	24	80.0
부정적			
	주의가 산만하다	2	6.7
	미흡하다	2	6.7
	행동이 느리다	1	3.3
	책임감 또는 의욕이 부족하다	1	3.3
	계	6	20.0
	합	30	100.0

인 응답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그들 자녀들의 행동양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조기취학 아동의 교우관계 측면

만 5세 조기취학아의 교우관계에 대한 학부모의 평가를 알아 본 결과, '긍정적인 응답' 이 85.3%(29명)이고 '부정적인 응답' 이 14.7%(5명)으로 나타

〈표 10〉 조기취학아의 교우관계에 대한 학부모의 평가

응	답	명	%
긍정적			
	원만하다	22	64.7
	친구에게 양보를 잘한다	4	11.8
	사교적이고 인기가 좋다	2	5.9
	점차로 좋아지고 있다	1	2.9
	계	29	85.3
부정적			
	원만하지 않다	2	5.9
	약간 원만하지 않다	2	5.9
	이해심이 부족하다	1	2.9
	계	5	14.7
	합	34	100.0

〈표 11〉 학부모가 지각한 학교 선생님의 아동에 대한 평가

응	답	명	%
긍정적			
잘 적응한다		6	26.1
학습능력이 뛰어나다		3	13.0
예의바르고 성격이 명랑하다		3	13.0
학급에서 모범생이다		2	8.7
학습태도가 좋다		1	4.4
근면 성실하고 탐구심이 강하다		1	4.4
계		16	69.6
부정적			
교사가 다른 아이 보다 더 관심을 가진다		2	8.7
교사의 선입견이 있다		1	4.4
사회성이 부족하다		1	4.4
산만하여 집중력이 떨어진다		1	4.4
이해력이 부족하다		1	4.4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1	4.4
계		7	30.7
합 계		23	100.0

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가 자녀의 교우관계는 대체로 원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학부모가 지각한 학교 선생님의 아동에 대한 평가

만 5세 조기취학 아동에 대한 교사의 평가를 학

〈표 12〉 조기취학아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평가

응	답	명	%
긍정적			
대체로 만족한다		17	51.5
매우 만족한다		5	15.2
재미있고 즐겁게 지낸다		3	9.1
방과 후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1	3.0
학년이 올라가면서 잘 적응한다		1	3.0
계		27	81.8
부정적인 심리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2	6.1
가끔 조기취학에 대해 투정한다		1	3.0
이해력, 사고력이 부족하다		1	3.0
의지, 의욕이 미약하다		1	3.0
가끔 친구에게 상처를 받는다		1	3.0
계		6	18.2
합 계		33	100.0

〈표 13〉 조기취학 제도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

응	답	명	%
긍정적			
아동 개인의 능력에 따라 권장할만하다		11	34.4
긍정적이다		8	25.0
전문적인 판별에 의해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1	3.1
생일이 빠르면 가능하다		1	3.1
취학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한다		1	3.1
다소 염려스럽지만 나쁘지 않다고 본다		1	3.1
계		23	71.8
부정적			
조기취학을 반대한다		3	9.4
정확한 선별에 의해 허용해야 한다		3	9.4
너무 성급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3	9.4
계		9	28.2
합		32	100.0

부모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 긍정적인 응답으로는 '잘 적응한다(26.1%, 6명)', '학습능력이 뛰어나다(13.0%, 3명)', '예외바르고 성격이 명랑하다(13.0%, 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는 학교 담임교사가 그들의 자녀에 대해 긍정적 평가(69.6%, 16명)를 하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고, 위의 질문 즉, 학부모가 지각한 담임교사의 평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23명의 학부모만이 응답을 하고 있어, 담임교사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조기취학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평가

만 5세 조기취학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평가를 알아 본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51.5%, 17명)', '매우 만족한다(15.2%, 5명)', '재미있고 즐겁게 지낸다(9.1%, 3명)' 순으로 긍정적인 응답(81.8%, 27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가끔 조기취학에 대해 투정한다', '이해력, 사고력이 부족하다', '의지,

의욕이 미약하다', '가끔 친구에게 상처를 받는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있었다.

6) 조기취학 제도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

만 5세 조기취학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알아 본 결과, '아동 개인의 능력에 따라 권장할만하다(34.4%, 11명)', '긍정적이다(25.0%, 8명)', '조기 취학을 반대한다(9.4%, 3명)', '정확한 선별에 의해 허용해야 한다(9.4%, 3명)' 등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조기취학 제도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조기취학 아동의 적응에 대한 담임 교사의 의견

1) 조기취학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담임교사의 평가

(1) 조기취학 아동의 신체발달 측면

만 5세 조기취학아의 신체발달에 대한 담임교사의 평가를 알아 본 결과는, '정상적이다(24.4%, 11

〈표 14〉 조기취학아의 신체발달에 대한 담임교사의 평가

응	답	명	%
긍정적			
	정상적이다	11	24.4
	다른 아이보다 크거나 또는 건강이 양호하다	9	20.0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6	13.3
	체격이 중간 정도이다	4	8.9
	신체발달의 속도가 빠르다	2	4.4
	체육활동에 적극적이다	1	2.2
	계	33	73.3
부정적			
	약간 작은 편이다	5	11.1
	학급에서 가장 작다	4	8.9
	신체적 발달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다	1	2.2
	체격이 작고 허약하다	1	2.2
	운동신경 발달이 늦다	1	2.2
	계	12	26.7
	합 계	45	100.0

명), '다른 아이보다 크거나 또는 건강이 양호하다(20.0%, 9명)',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13.3%, 6명)' 라는 긍정적인 응답(73.3%, 33명)과, '약간 작은 편이다(11.1%, 5명)', '학급에서 가장 작다(8.9%, 4명)' 라는 부정적인 응답(26.7%, 12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기취학아의 대부분이 신체적으로 건강이 양호함을 알 수 있다.

〈표 7〉, 〈표 14〉를 비교해 보면 학부모의 86.6%(26명)와 담임교사의 73.3%(33명)은 조기취학아가 신체적으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조기취학 아동의 학업성취도 측면

만 5세 조기취학아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담임교사의 평가를 알아 본 결과는, '비교적 우수하다(15.6%, 7명)', '중상위권이다(11.1%, 5명)', '보통 중간 정도이다(8.9%, 4명)' 등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어 학업성취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8〉, 〈표 15〉를 비교해 보면 학부모의 75.1%(24명)와 담임교사의 68.9%(31명)는 조기취학아의 학습능력이 우수하거나 보통으로써 정상취학아에 못지않게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조기취학 아동의 행동발달 측면

만 5세 조기취학아의 행동발달에 대한 담임교사의 평가를 알아 본 결과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11.8%, 6명)',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거나 의기소침하고 의욕이 없다(9.8%, 5명)', '다른 아이와 비슷하다(7.8%, 4명)', '은순, 순진하다(7.8%, 4명)' 등의 순으로 응답을 하여, 긍정적인 응답이 60.8%(31명)로 나타나 조기취학아의 행동이 대체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표 16〉을 비교해 보면 학부모의 80.0%(30명)과 담임교사의 60.8%(31명)는 조기취학 아동의 행동양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조기취학아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담임교사의 평가

응	답	명	%
긍정적			
	비교적 우수하다	7	15.6
	중 상위권이다	5	11.1
	보통 중간 정도이다	4	8.9
	다른 아이와 차이가 없다	3	6.7
	학습활동에 적극적이다	3	6.7
	매우 우수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2	4.4
	학업 뿐만 아니라 뛰어난 재능이 있다	2	4.4
	예능에 소질이 있다	2	4.4
	학업에 흥미가 없어도 지적인 능력이 우수하다	2	4.4
	문제해결 능력이 우수하다	1	2.2
	계	31	68.9
부정적			
	학습능력이 부족하거나 학습의욕이 떨어진다	6	13.3
	이해력, 판단력, 기억력이 부족하다	3	6.7
	토의학습에 어려움이 있다	1	2.2
	학급에서 가장 하위권이다	1	2.2
	수학적인 문제해결력이 부족하다	1	2.2
	과제학습을 전혀 하지 않는다	1	2.2
	글씨를 정확하게 쓰지 못한다	1	2.2
	계	14	31.1
	합 계	45	100.0

(4) 조기취학 아동의 교우관계 측면

만 5세 조기취학아의 교우관계에 대한 담임교사의 평가를 알아 본 결과는, 긍정적(50%, 20명)과 부정적(50%, 20명)으로 응답을 하여, 조기취학아의 반수가 교우관계 및 사회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 〈표 17〉을 비교해 보면 학부모의 85.3%(29명)과 담임교사의 50.0%(20명)가 조기취학아의 교우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그 비율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 조기취학 아동과 정상취학 아동의 장기적 예측 비교

(1) 조기취학 아동과 정상취학 아동의 신체발달에 대한 장기적 예측 비교

조기취학아와 정상취학아의 장기적인 예측 비교에서 신체발달 측면에 대해 알아 본 결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62.2%, 23명)', '개인차가 있겠지만 어린만큼 미숙할 것이다(16.2%, 6명)', '체격의 차이가 좁혀질 것이다(8.1%, 3명)'라는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년이 되면 두 집단의 신체발달은 거의 동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조기취학 아동과 정상취학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장기적 예측 비교

조기취학아와 정상취학아의 장기적인 예측 비교

〈표 16〉 조기취학아의 행동발달에 대한 담임교사의 평가

응	답	명	%
긍정적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		6	11.8
다른 아이와 비슷하다(원만)		4	7.8
온순, 순진하다		4	7.8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한다		3	5.9
명랑하고 사교적이며 인기가 있다		3	5.9
예의바르고 도덕심이 강하다		2	3.9
양보심과 타협심이 강하다		2	3.9
협조적이거나 봉사심이 있다		2	3.9
활달하고 적극적이다		2	3.9
교사의 지시나 규칙을 잘 지킨다		1	2.0
자기주장과 독립심이 강하다		1	2.0
성격이 원만하다		1	2.0
계		31	60.8
부정적			
내성적, 소극적이거나 의기소침하고 의욕이 없다		5	9.8
주의가 산만하여 집중력이 부족하다		3	5.9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다		2	3.9
자기중심적이고 장난이 심하다		2	3.9
어린 행동을 한다		2	3.9
협동심, 책임감, 근면성이 부족하다		2	3.9
공격적이고 친구와 자주 싸운다		1	2.0
주변정리 및 상황 판단력이 부족하다		1	2.0
자기표현력이 부족하다		1	2.0
수다스럽다		1	2.0
계		20	39.2
합 계		51	100.0

에서 학업성취에 대해 알아 본 결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43.2%, 16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계속 부진하거나 차츰 뒤떨어져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21.6%, 8명)', '점점 향상이 기대된다(10.8%, 4명)'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조기취학아와 정상취학아가 고학년이 되었을 때 긍정적인 예측(56.8%, 21명)과 부정적인 예측(43.2%, 16명)이 비슷하게 나타나, 〈표 15〉와 비교하여 볼 때 담임교사는 조기취학 아동 중에서 학습 능력이 우수한 아동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차츰 성적이 뒤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조기취학 아동과 정상취학 아동의 행동발달에 대한 장기적 예측비교

조기취학아와 정상취학아의 장기적인 예측 비교에서 행동발달에 대해 알아 본 결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39.5%, 17명)' 등의 긍정적인 응답이 48.8%(21명)으로 나타났고, '부분적으로 뒤떨어진 행동을 할 것이다(27.9%, 12명)' 등의 부정적인 응답이 51.2%(22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고학년이 되면서 조기취학아의 절반 정도는

〈표 17〉 조기취학아의 교우관계에 대한 담임교사의 평가

응	답	명	%
긍정적			
원만하다		14	35.0
사교적이고 친구가 많다		4	10.0
다른 아이와 비슷하다		2	5.0
	계	20	50.0
부정적			
비사교적이고 친구의 폭이 좁다		12	30.0
친구와 잘 싸우고 폭력적이다		5	12.5
고립적이거나 따돌림을 받는다		2	5.0
친구의 행동을 모방한다		1	2.5
	계	20	50.0
합	계	40	100.0

〈표 18〉 조기취학아동과 정상취학아동의 신체발달에 대한 장기적 예측비교

응	답	명	%
긍정적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3	62.2
체격의 차이가 좁혀질 것이다		3	8.1
	계	26	70.3
부정적			
개인차는 있겠지만 어린 만큼 미숙할 것이다		6	16.2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5.4
집착하기 어렵다		2	5.4
체격보다는 체력면에서 뒤떨어질 것이다		1	2.7
	계	11	29.7
합	계	37	100.0

정상취학아 보다 뒤떨어진 행동발달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조기취학 아동과 정상취학 아동의 교우관계에 대한 장기적 예측비교

조기취학아와 정상취학아의 장기적인 예측 비교에서 교우관계에 대해 알아 본 결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47.2%, 17명)', '자기중심적이거나 부족할 것이다(22.2%, 8명)', '개인성향에 따라 다를 것이다(11.1%, 4명)' 등의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담임교사가 생각하는 조기취학아의 교우관계는 고학년이 되어도 현재와 별 차이가 없이 교우관계가 원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담임교사가 본 조기취학 아동의 부적응 현상

만 5세 조기취학아의 학교에서의 부적응 현상을 알아 본 결과, '학습능력, 협동학습, 판단력이 부족하다(23.2%, 13명)', '사회성 및 교우관계가 원만

〈표 19〉 조기취학아동과 정상취학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장기적 예측비교

응	답	명	%
긍정적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16	43.2
점점 향상이 기대된다		4	10.8
학년이 올라가면서 간격차가 좁아질 것이다		1	2.7
계		21	56.8
부정적			
계속 부진하거나 차츰 뒤떨어져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8	21.6
노력이 있어야 학업성취를 할 수 있다		2	5.4
고차원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2	5.4
적령기에 취학하면 더 우수할 것이다		1	2.7
조기취학 아동 전담 학급이 필요하다		1	2.7
유전과 환경에 따라 다를 것이다		1	2.7
짐작하기 어렵다		1	2.7
계		16	43.2
합 계		37	100.0

〈표 20〉 조기취학아동과 정상취학아동의 행동발달에 대한 장기적 예측비교

응	답	명	%
긍정적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17	39.5
점점 더 향상이 기대된다		2	4.7
학년이 올라가면서 잘 적응 할 것이다		2	4.7
계		21	48.8
부정적			
부분적으로 뒤떨어진 행동을 할 것이다		12	27.9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 배려가 부족할 것이다		2	4.7
주의가 산만할 것이다		2	4.7
유전과 환경에 따라 다를 것이다		2	4.7
조기취학 아동 전담학급편성은 좋은 효과가 기대된다		1	2.3
어린 행동을 할 것이다		1	2.3
유아기 놀이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		1	2.3
짐작하기 어렵다		1	2.3
계		22	51.2
합 계		43	100.0

하지 않다(21.4%, 12명), '의지력이 부족하다(7.1%, 4명)', '어린 행동을 한다(7.1%, 4명)', '소극적인 행동 또는 과다표현을 한다(7.1%, 4명)' 등

으로 응답이 나타났고, '특별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12.5%, 7명)' '학년이 올라가면서 감소한다(7.1%, 4명)' 라는 응답이 나타났다.

. 이에 따르면 조기취학아에게 나타나는 주된 부적응 현상은 학습능력과 교우관계 및 사회성 부족임을 알 수 있다.

4) 조기취학 제도에 대한 담임교사의 의견

만 5세 조기취학 제도에 대한 담임교사의 의견

〈표 21〉 조기취학아동과 정상취학아동의 교우관계에 대한 장기적 예측비교

응	답	명	%
긍정적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17	47.2
점점 향상이 기대된다		2	5.6
학년이 올라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2	5.6
보통일 것이다		1	2.8
계		22	61.2
부정적			
자기중심적이거나 부족할 것이다		8	22.2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를 것이다		4	11.1
조기취학 아동 전담 학급편성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1	2.8
짐작하기 어렵다		1	2.8
계		14	38.9
합	계	36	100.0

〈표 22〉 담임교사가 본 조기취학 아동의 부적응 현상

응	답	명	%
긍정적			
특별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		7	12.5
학년이 올라가면서 감소한다		4	7.1
계		11	19.6
부정적			
학습능력, 협동학습, 판단력이 부족하다		13	23.2
사회성,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12	21.4
의지력이 부족하다		4	7.1
어린 행동을 한다		4	7.1
소극적인 행동 혹은 과다표현을 한다		4	7.1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다		2	3.6
나이가 어리다고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다		1	1.8
글씨를 잘 쓰지 못한다		1	1.8
괴성이나 과격행동을 한다		1	1.8
주의력이 부족하다		1	1.8
학부모의 과잉보호가 문제이다		1	1.8
잘모르겠다		1	1.8
계		45	80.5
합	계	56	100.0

을 알아 본 결과, 담임교사의 55%(22명)는 부정적 '정확한 판단기준으로 선별하면 괜찮다(15.0%, 6명)',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아동에게 바람직하다' 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긍정적이다(15.0%, 6명)',

〈표 23〉 조기취학 제도에 대한 담임교사의 의견

응	답	명	%
긍정적			
	긍정적이다	6	15.0
	정확한 판단기준으로 선별하면 괜찮다	6	15.0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아동에게 바람직하다	4	10.0
	지적 우수 아동에게 바람직하다	2	5.0
	계	18	45.0
부정적			
	지능보다는 사회성이 증시되어야 하다	6	15.0
	여러 부작용 현상이 나타나므로 반대한다	5	12.5
	만 6세 정상취학을 권한다	4	5.0
	현 상황에서는 시기상조이다	2	2.5
	조기취학 아동 전담 학급이 필요하다	1	2.5
	취학보다는 또래와의 놀이가 필요하다	1	2.5
	정상취학 아동에게 피해가 생긴다	1	2.5
	특별히 뛰어난 아동은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한다	1	2.5
	폐지 아니면 수정보완하여 실시한다	1	2.5
	계	22	55.0
	합 계	40	100.0

〈표 24〉 조기취학을 희망하는 학부모에 대한 조건

응	답	명	%
긍정적			
	지적, 신체적인 조건이 갖추어지면 가능하다	5	11.9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한다	1	2.4
	계	6	14.3
부정적			
	객관적이고 신중한 판단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2	28.6
	만 6세 정상취학을 권한다	11	26.2
	지적능력 보다는 사회·정서 발달이 중요하다	8	19.1
	취학보다는 예체능 활동을 권장한다	2	4.8
	학습능력이 뒤떨어질 수 있다	1	2.4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1	2.4
	교사 본인의 경험으로 반대한다	1	2.4
	계	36	85.7
	합 계	42	100.0

〈표 25〉 조기취학을 하기 위한 아동의 특성에 대한 교사의 의견

응	답	명	%
	신체, 학습능력, 사회·정서가 발달이 선행되어야 한다	28	57.1
	성격이 적극적이고 명랑해야 한다	5	10.2
	의지력이나 지구력이 우수해야 한다	4	8.2
	지능이 높아야 한다	3	6.1
	기본생활습관이 갖추어져야 한다	3	6.1
	지적능력 보다는 인성 및 적응력이 중요하다	2	4.1
	어휘력이 풍부해야 한다	1	2.0
	남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1	2.0
	학습의욕이 있어야 한다	1	2.0
	학교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한다	1	2.0
	계	49	100.0

(10.0%, 4명), '지적 우수 아동에게는 바람직하다(5.0%, 2명)'라는 긍정적인 반응에 비해, '지능보다는 사회성이 중시되어야 한다(15.0%, 6명)', '여러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므로 반대한다(12.5%, 5명)', '만 6세 정상취학을 권한다(10.0%, 4명)', '현 상황에서는 시기상조이다(5.0%, 2명)' 등의 순서로 조기취학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담임교사는 조기취학아의 적응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학부모의 판단보다는 정확한 판단기준으로 선별하기를 원하고, 지적인 능력보다는 사회성 발달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5) 조기취학을 희망하는 학부모에 대한 조언

만 5세 조기취학을 희망하는 학부모에게 교사들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에 대해 알아 본 결과, '지적·신체적인 조건이 갖추어지면 가능하다(11.9%, 5명)'라는 긍정적인 조언을 해주고 싶다는 응답이 적게 나타났으며, 이와 반대로 '객관적이고 신중한 판단으로 결정하여야 한다(28.6%, 12명)', '만 6세 정상취학을 권한다(26.2%, 11명)', '지적능력 보다는 사회·정서발달이 중요하다

(19.1%, 8명)', '취학보다는 예체능 활동을 권장한다(4.8%, 2명)'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85.7%(36명)로 나타났다.

6) 조기취학을 하기 위한 아동의 특성에 대한 담임교사의 의견

만 5세 조기취학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담임교사의 의견을 알아 본 결과, '신체, 학습능력, 사회·정서 발달이 선행되어야 한다(57.1%, 28명)'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성격이 적극적이고 명랑해야 한다(10.2%, 5명)', '의지력이나 지구력이 우수해야 한다(8.2%, 4명)', '지능이 높아야 한다(6.1%, 3명)', '기본생활습관이 갖추어져야 한다(6.1%, 3명)', '지적능력 보다는 인성 및 적응력이 중요하다(4.1%, 2명)' 등의 응답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만 5세아가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의 능력이 아닌 종합적인 발달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5세 조기취학아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적응도에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를 알아 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기초하여 첫째, 지능 및 사고력 검사, 둘째, 사회·정서 발달, 셋째, 만 5세 조기취학 아동의 적응에 관한 학부모와 담임교사의 견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만 5세 조기취학 아동과 만 6세 정상취학 아동의 지능 및 사고력 발달 정도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의 지능은 차이가 없었고, 사고력에서는 하위요인 10개 중에서 추상적 사고력만이 조기취학아가 정상취학아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대균·이기우·현은자(1997)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선행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지능이 동일하였고, 고차원적인 사고력에서만 조기취학 아동에 비해 정상취학 아동이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3학년의 사고력이 두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조기취학 아동의 인지 과제 수용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Piaget의 보존실험(정덕희, 1996)에서 정상취학 아동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만 5세 조기 취학 아동이 만 6세 정상 취학 아동에 비해서 추상적 사고력이 더 높게 나온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예측이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 그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첫째,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가 아동을 조기 취학시킨 이유로 신체적·지적인 수준이 우수하다고 판단한 아동을 주로 입학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조기 취학 아동과 정상 취학 아동간에 생일의 차이가(최고 3개월)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조기취학 아동과 정

상취학 아동간의 차이가 없어진다는 Langer, Kalk와 Searls(1984)와 Davis, Trimble과 Vincent(1980)의 학년별 학습능력 연구 결과와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의 조기 취학 제도는 우리 나라와는 달리 선별에 의한 조기 취학이므로 우리 나라 실정과는 다른 점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만 5세 조기취학 아동과 만 6세 정상취학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사회·정서 발달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대균·이기우·현은자(1997)의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정서 발달 검사에서 교사에 대한 의존성 요인에서만 조기취학아와 정상취학아 간에 차이가 없으며, 나머지 5개 사회·정서 발달 하위요인에서는 조기취학 아동에 비해 정상취학 아동이 유의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집단간의 생일의 차이가 적으므로 인해 1학년 시기의 부적응 행동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극복되고 적응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만 5세 조기취학 아동의 적응에 관한 학부모와 담임교사의 종합적인 견해는 모두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학교생활에서의 신체 발달, 학업성취, 행동 발달, 교우 관계에서 조기취학 아동이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기취학을 위해 아동은 신체, 학습능력, 사회, 정서면에서 전인적인 발달이 이루어져야 하고, 신중하게 조기취학을 시킬 것을 당부하며, 정확한 선별기준과 만 6세 정상취학을 권장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대균·이기우·현

은자(1997)와 전경원(1998)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선행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기취학제도에 관한 질문에서 학부모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비교적 만족을 하고 있는 반면, 교사들은 지적능력 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서적 발달과 적응도 측면에서 조기취학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나타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학부모와 담임교사 모두가 3학년의 적응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1학년 담임교사는 조기취학 아동을 지도할 때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3학년의 담임교사는 정상취학 아동과 조기취학 아동간의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와 논의를 기초로 만 5세 조기취학 아동은 1학년 시기에는 부적응 현상을 보였지만, 3학년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정상취학 아동과 큰 차이 없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러나 3·4학년과 달리 현재 1학년과 2학년의 조기취학아와 정상취학아간에는 연령차이가 이전(3, 4학년의 경우)의 3개월에 비해 12개월로 확대되어, 이들의 적응도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조기취학아의 적응도에 대한 변화 양상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경향신문(1995). '5세 선별취학 실효성 없다'. 경향신문 1995년 6월 9일.
- 교육개혁심의회(1987). 교육개혁종합구상. 교육개혁심의회.
- 교육개혁심의회(1995).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新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교육개혁위원회.
- 교육개혁심의회(1997).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IV). 교육개혁위원회
- 교육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연대 단체 (1995). 교육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연대 단체의 의견서.
- 교육부(1995a). 교육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보 13112호. 교육부.
- 교육부(1995b). 교육법 제 96조 제 2항, 교육법 시행령 제 96조 3 개정 공포. 교육부.
- 교육부(1996). 1996년도 5세 조기 취학 현황. 교육부.
- 교육부(1997). 1997년도 5세 조기 취학 현황. 교육부.
- 교육부(1998). 초·중등교육법령의 이해. 교육부
- 김영신(1996). 초등학교 입학연령의 단력적 운영에 관한 효율적 실행방안 모색.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자(1997). 조기취학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대한 교사인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 정·신동주·김재웅(1996). 유치원 교육 공교육화. 서울: 양서원.
- 대전광역시 교육청(1997). 만 5세아 초등학교 취학허용 시행 계획. 대전광역시 교육청.
- 대전광역시 교육청(1999). 만 5세아 초등학교 취학허용 시행 계획. 대전광역시 교육청.
- 박미영(1998). 초등학교 조기입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신문(1995). 5세 취학 조기 과외 열풍 우려. 서울신문 1995년 6월 9일.
-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과(1996). 만 5세 아동 취학 시행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 이기숙(1997).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개선방향. 배재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세미나 자료집.
- 이대균·이기우·현은자(1997). 5세 조기취학 아동의 적응도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 이원영(1987). 유아중심 교육과정 운영방법 모색. 서울 사립유치원 연합회 회보 제 6호.
- 이원영(1995). '5세 입학' 득보다 실패다. 동아일보 1995년 9월 28일.
- 임연기(1995). 국민학교 입학 연령의 탄력적 운영방안. 교육평론, 10월호 pp.25-34.
- 임연기·나정·조석희(1995).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전경원(1998). 만 5세 조기 입학 아동의 취학전 교육과 취학후 적응에 관한 연구. 제 5차 아시아-태평양 영재학회 발표.
- 정덕희(1996). 조기입학 아동의 인지과제 수행, 사회적 수용도, 자아개념 연구. 열린유아교육학회지, 1(1), pp.185-202.
- 정환영(1995). '5세 입학' 과 평등교육. 동아일보 1995년 10월 19일.
- 한국교육개발원(1987). 유아학습준비도 검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1995).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유아교육학회(1995). 국민학교 입학연령 탄력적 운영에 관한 토론회 자료. 서울: 한국유아교육학회.
- 한국유아교육학회 외(1995). 교육법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에 대한 연대 단체 의견서. 서울: 한국유아교육학회 외.
- 한국일보(1995). '4세 유아 과외 열풍'. 한국일보 1995년 9월 14일.
- 한국일보(1995). '만 5세 취학안 철회틀'. 한국일보 1995년 6월 9일.
- Davis, B. G., Trimble, C. S., & Vincent, D. R.(1980). Does age of entrance affect school achievement?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80(3), 133-143.
- Hobson, J. R.(1963). High school performance of underage pupils initially admitted to kindergarten on the basis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examinations. *Education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3, 159-170
- Langer, P., Kalk, J. M., & Searls, D. T.(1984). Age of admission and trends in achievement: A comparison of blacks and caucasian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1(1), 61-78.
- Proctor, T. B., Black, K. N., & Feldhusen, J. F.(1986). Early admission of selected children to elementary school: A review of the reserach literatur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0(2), 70-76. Mansfield Center, CT: Creative Learning Press.
- Uphoff, J. K., & Gilmore, J. E.(1985). Pupil age at school entrance: How many are ready for success? *Educational Leadership*, 43, 86-90.